



삶 속 예술

'아트 마스크'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입주작가 작품 이미지 활용 디자인 인기

재단은 힐링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고 더불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미술 체험을 위해 컬러링북 형식의 도록을 제작했다. 여느 도록처럼 각 작가의 작품을 심고 대표작 한점씩을 직접 색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정정에 작가의 커피를 마시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담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정물이 어우러진 서은영 작가의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 보자' 등이다.

재단은 최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개최한 '집으로 온 갤러리' 전에서는 기존의 종이 포스터 대신 패브릭 포스터를 제작했다. 역시 렌트 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강금복·강종래·이창훈·조성태·한동훈 작가의 작품 41점을 선보인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그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해 진행된 특별전이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배포된 패브릭 포스터는 한동훈 작가의 '혼자놀이', '갈 수 없는 삶', 이창훈 작가의 '도시의 뼈에로' 등 모두 5점이다. 패브릭 포스터는 집안 인테리어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한편 이번 전시 작품들은 전남문화재단 사이버 갤러리에서도 감상할 수 있으며 작품당 3-5만원을 내고 대여할 수도 있다.

마스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와 떼어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다양한 스타일의 마스크 겹이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직접 만들어 보는 일회용 강좌도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최근 '아트 마스크'를 제작해 배포했다. 미술관이 운영하는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입주작가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로 각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모았다. 참여 작가는 강지수·고유진·손지원·송미경·윤상하·임형준·최진웅·하도훈·홍지혜·장동 콜렉티브다.

코로나로 대면 체험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작품 제작 키트를 직접 신청자의 가정에 보내고, 유튜브 등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함께 제작해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됐던 미술주간 행사에서는 판화제작 키트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으며 영산강문화관은 대표적 프로그램인 '영산강문화제-강&그릇' 프로그램인 '영산강 그릇 체험' 키트를 제작해 가정에 배달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작 방법 등을 공유하며 완성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정에 작
'너를 기다리는 동안 3'



'희망을 그리는 시간' 전

강근선·김미숙·서지영·정정에 작가
작품 선정 '컬러링북' 형식 직접 채색

'춤추는 미술관'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애니메이션 크루의 '춤추는 미술관'이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추진하는 우수공연초청기획사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세 번째 무대다.

'춤추는 미술관'은 우리가 미술관 혹은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술 작품, 조형물 등이 살아 움직이는 상상을 실현시킨 스트리트 댄스를 바탕으로 한 공연이다. 다양한 장르와 기술이 융합된 작품으로 무대 자체가 하나의 전시관이 되고 아티스트 자체가 작품이 된다. 입체적인 세상에서 보여지는 2D의 움직임, 스트리트 댄스와 다양한 기술들이 만나 무한 상상의 향연이 펼쳐진다.

애니메이션 크루는 대한민국 스트리트 댄스와 힙합 장르를 대중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창작, 공연해온 단체다. 다음 공연은 메타댄스프로젝트의 '카르미나 부리나' (29일)다. 한편, 이번 공연은 150여 석만 운영한다. 7세 이상 관람, 전석 무료. 문의 062-670-7942. /전은재 기자 ej6621@

아시아문화원 캐릭터 '시아와 친구들' '우리동네캐릭터 대상' 공공부문 대상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하 문화원) 캐릭터 '시아와 친구들<사진>'이 '제3회 우리동네캐릭터 대상'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우리동네캐릭터 대상'은 국내 캐릭터 산업 활성화와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시아와 친구들'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으로 진행된 예선을 거쳐, 100%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본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대상의 쾌거를 안았다. 특히 '시아와 친구들'은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상징하는 시아(Sia), 고니(Goneee), 페리(Paree), 칼리(Kalee), 엘리(Elee), 키니(Keynee)로 구성됐다.

수상작은 향후 캐릭터 라이선싱, 상품개발·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향교, 21일 추기 석전대제 봉행

광주향교(전교 김중재)가 공기 2571년을 맞아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한다. 광주향교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광주향교 대성전과 잔디광장에서 추기(秋期) 석전대제를 봉행한다.

석전대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으로, 전국의 모든 향교에서 춘기와 추기 2회 봉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만세종사인 공부자 5성인과 사계선생을 비롯한 20성현의 유덕을 기리고 도의 정신을 숭상하는 자리다.

봉행행사는 초헌관 이달우(전주이씨 광주전남 종약원장), 아헌관 정우성(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종헌관 김용석(전 행정공무원 사무관), 동분헌관 김중훈(전 건국대), 서분헌관 오도근(전 교장) 측관 광병철(전 성균관부관장), 묘사(이현호의 전수석)의 진행, 성균관유도회 남구지부회장 최병섭 집례로 진행된다. 문의 062-672-700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출신 이진 작가 '허균, 불의 향기' 펴내

"역사 이면에 드리워진 허균 삶 그려"

우리 문학사에서 혁명가로 죽었으나 소설가로 살아남은 이가 있다. 바로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이다. '홍길동전'은 우리문학의 중요한 자산이자 당대 한글문학의 뛰어난 성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균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는 조선왕조가 막을 내릴 때까지 신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많은 뛰어난 저작들 역시 방치되고 잊혀졌다. 주류 기득권층 외면에도 불구하고 허균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의 우리의 문학과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

허균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 소설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 출신 이진 작가가 '허균, 불의 향기' (북치는 마을)를 펴

냈다. 작가는 허균의 누이인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 허난설헌을 다룬 소설 '하늘 꽃 한송이, 너는'을 펴낸 바 있다.

이번 소설에서 저자는 허균의 문학사적 위업보다 인간적인 삶에 더 초점을 맞췄다. 혁명사상을 부각시키려 하기보다 개인적인 삶의 꺾임에 공을 들였다. 허균이라는 결출한 인물의 인생역정을 영웅 서사가 아닌, 인간적 면모 가득한 미시 서사로 포착한 것이 영웅

소설의 첫 시작은 허균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는 순간을 그렸다. 망나니의 칼끝이 목줄기에 막 닿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허균을 죽여야만 했던 이들과 그의 죽음을 용납할 수 없는 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침내 허균의 목이 떨어지고 누군가가 그의 목을 훔쳐 달아난다. 처형된 자의 목이 탈취되는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들의 연쇄로 이어진다. 각자 서로 다른 입장에 선 이들의 주장과 행위는 소설에 긴장감과 활력을 더한다. 여기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원수 집안의 두 남녀, 허균을 죽인 이이첨의 아들과 허균의 딸 사이의 사랑 이야기까지 더해져, 소설은 재미와 긴장을 선사한다.

이 작가는 "구상부터 집필에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다"며 "몇 줄로 압축된 역사적 사료 이면에 가려진 허균의 진실을 내 방식으로 찾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춘문예 출신 소설가이자 문학박사인 이 작가는, 광주전남의 역사적 인물을 발굴해 재해석하는 소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서설' 등과 논문집 '토지의 가족서사 연구'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